



사진 2



사진 3



사진 4

## 촛대[燭臺] - 소목장 조각칼 제작 목촛대

# 燭臺



사진 1

전통사회에서 '조각장(彫刻匠)'이라고 하면 주로 금속 세공을 담당하던 장인을 가리킨다. '조이장(彫伊匠, 또는 쪼이장)'이라고도 하며 입사장(入絲匠)과 더불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금속기의 표면에 평각(平刻)·투각(透刻)·고각(高刻)·육각(肉刻)·상감(象嵌)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문양을 새기는 일을 한다. 나무를 다루는 장인은 따로 대목장(大木匠)과 더불어 소목장(小木匠)이라는 다른 명칭이 있었다. 대목장은 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담당하고 소목장은 주로 목재로 여러 세간(世間)들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장롱·궤·경대·책상·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장인의 일과 건물의 창호 제작과 같은 건축 상의 소목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등잔대나 촛대도 세간, 즉 살림살이의 일종으로, 대개 소목장에게 주문을 하면 그가 좋은 질감의 나무를 구해다가 끌이나 조각용 기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등잔대와 촛대들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앞서 9월호에서 소개한 같이틀(筵機)로 제작하여 둥근 면 처리가

사진1 목제쌍촛대[木製雙燭臺]// 조선시대// 높이 38cm, 밑지름 11.7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46.5cm, 밑지름 16.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3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43.2cm, 밑지름 18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4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36.7cm, 밑지름 19.2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 5



사진 6



사진 7

돋보이는 형태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곡선이 아닌 직선의 각이 도드라지고 때로는 투박하지만 정감이 넘치고 소박한 느낌을 주며, 때로는 정교하고 세밀한 조각 솜씨가 일품인 것들도 있다.

기록상으로 보면 목수는 신라때부터 있었고, 소목장이라는 명칭은 고려때부터 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새김칼' 이라고도 하는 소목장 각수(刻手)들이 사용하는 조각칼은 무늬를 새기거나 도장을 파거나 글씨를 새기거나 투조(透彫) 하는 등 그 사용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다. 날이 뾰족한 것, 평평하고 넓은 것, 둥근 것, 삼각형 모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손잡이 자루 또한 용도에 따라 굵기와 길이 등에서 다양각색이다.

이들 조각칼과 비슷한 것으로 호비칼과 칼켜 등이 있다. 호비칼은 낫과 같이 둥글고 구부러진 날에 자루를 박아 사용한 것으로, 대패질을 할 수 없는 흠이 진 나무속이나 함자박·나막신 등을 후벼 파낼 때 사용한다. 형태에 따라 크기나 구부러진 정도가 서로 달라서, 대개 날이 큰 것은 날이 한쪽만 있고 작은 것은 양쪽으로 나 있는 경우가 많다. 칼켜는 날이 가운데에 있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그것을 잡고 밀면서 깎아낸다. 요즘 목공예용으로 사용하는 조각칼 또한 전통적인 조각칼을 모방한 것이 많은데, 용도에 따라 창칼·둥근칼·끝칼·세모칼 등이 있다. 창칼은 대개 날카로운 선이나 세밀한 부분을 파낼 때 쓰고, 둥근칼은 굵은 선을 파낼 때나 넓은 면을 파낼 때, 그리고 끝칼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거친 면을 처리할 때, 세모칼은 선을 파내는 데 주로 쓰인다. 어떤 것을 조각하느냐에 따라 쓰이는 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5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42.4cm, 밑지름 19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6 목제쌍용문촛대[木製雙龍文燭臺]// 조선시대// (좌) 높이 71.3cm, 밑지름 19.3cm (우) 높이 70.0cm, 밑지름 19.0cm// 서울역사박물관

사진7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138cm// 성균관대학교박물관